같은 눈물 다른 의미

(요11:17~37)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같은 눈물 다른 의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두 부부 선교사님이 아마 한국에 선교사님들의 모임, 무슨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1월 달에 그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었는데,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예배 때 어떤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건데, 바로 3개월 전에 선교지에서 그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아내를 잃은 선교사님, 뭐 호의호식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한 그런 선교지에서 같이 사명을 느끼고 남편과 함께 선교를 하시다가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으

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서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만 슬퍼해라, 너에게 시간을 좀 더 연장해 준 것 뿐이다, 이제 네가 남아서 사명을 다 마치고, 네 아내와 다시 만날 것을 내가 약속하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힘을 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 이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딸이 둘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살짜리 딸과 9살짜리 딸.
12살짜리 딸은 이름이 시편이고, 9살짜리 딸은 이름이 잠언이에요.
시편과 잠언, 12살 9살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그 아내.
아! 그러니까 자기와 두 딸은 남겨두고 먼저 떠난 아내를 가슴에 묻고,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씩씩한지,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모잠비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들을 당시는, 그 새벽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아팠을 것을.
그런데 새벽예배가 끝나고 나서 강의를 듣는데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아마 관광을 갔던 모양이지요?
양화진에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묻힌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 옆에 가족들의 무덤이 있고,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선교를 하다가, 이 이역만리 낯선 한국 땅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묻힌 그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을 남겨두고 이곳에 와서 죽은 선교사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가족들이 묻힌 그 무덤을 보면서 이 새벽에 설교하시던 선교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또 눈물이 나고…
그리고 모잠비크 선교사님의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서, 카톡이라 그러나요? 축구장에서 찍은 사진이 왔는데 그걸 보면서 또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을 것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도 울고, 마리아를 따라온 조문객들인 유대인도 울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우십니다.
오라비를 잃은 마리아가 울고 있고, 이웃을 잃은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겠어요.
이 조문객들 중에는, 유대 땅에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관례로 이 전문 곡소리꾼들도 끼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주들이 너무 지쳐서, 슬퍼해야 되는데, 죽은 자의 이 망자와의 이별을 슬퍼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힘드니까 전문 곡소리꾼들이 와 가지고 같이 곡을 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많은 유대인이 왔다는 걸 보면,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꽤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도 꽤 유력했던 집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 받은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자, 그렇게 오라비와 이웃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시는 건 왜 우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때문에 운다는 것은 너무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자리를 옮기셨을 때에,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전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반응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갈을 받고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본문에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고, 죽게 된 것이 결론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실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을.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오셨습니다, 이제 나흘째 되가지고, 시체가 썩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덤 앞에 와서 우십니다.
이제 무덤 앞에서, 우리가 그 다음부분에 읽을 건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면 나사로가 나올 겁니다, 상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잠깐 잠든 것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셨을까?
33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지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은 슬퍼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통히 여기신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을 보면 '격렬하게 불쾌해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격렬한 불쾌감을 내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도, 이렇게 '불쌍히'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셨다' 그래서 우신 겁니다, 마음이 동요돼서 우신 겁니다.
격렬한 불쾌감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180도로 또 감정이 바뀌면서 마음이 동요되시면서 우셨습니다.

자! 도대체 상가에 와서, 고인을 향하여 울고 있는 상주의 울음과 조문객들의 울음의 현장을 보시고, 왜 불쾌하셨습니까? 왜 격렬한 불쾌감을 표현하셨습니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돼서 불쾌감을 표현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격렬한 불쾌감을.
누구를 향한 격렬한 불쾌감입니까?
너무 뜬금없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귀를 향한 격렬한 불쾌감이셨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 본문을 읽었거든요?
히브리서 2장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인간이 육체가 죽는다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완전히 종으로 매서 종노릇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이 인간의 죽음,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상태에서, 죽음이 무섭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안에 머물고 있게 만든 겁니다.
바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실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난 나사로를 향하여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세상을 떠난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한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향해 그럼 슬퍼하지, 뭐가 그게 잘못 된 거냐?
이게 바로 마귀가 붙잡고 있고,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종노릇 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합니까?
하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아! 세상을 떠났으니까 슬퍼하지.
앞에 말씀하신 예를 들었던 그 선교사님의 경우도, 아내가 먼저 시편이와 잠언이와 남편을 다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갖고 왜 불쾌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이별 때문에 슬퍼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별이 성립이 됩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날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날 때에 이별이 성립돼서 슬픈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이별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먼저 통분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우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서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 매여 있는 현실, 이것이 마귀의 지배라는 것을 보고 마귀에게 통분히 여기셨지마는, 이들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이별이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데,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별 때문에 울었는데, 그 이별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별이라는 게,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자가 떠났을 때에 이별이 성립이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이니까, 지금 사랑하는 마리아와 사랑하는 선민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어떡하던지 구원하고 싶은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계시는 그 하늘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붙잡혀 가지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죽었다는 게 뭐냐 하면 하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고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떠났다고 울고 있는데, 이 현실을 주님은 똑같은 이별로 느끼며 울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이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계시는 하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이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났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마음도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떠났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볼 때 다 죽었다'
세상을 떠난 자가 세상에서 볼 땐 죽은 자인 것처럼, 하늘을 떠난 자가 하늘에서 볼 땐 죽은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지금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주님에게는 울 일이 아니라,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고 울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늘을 떠나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었을 때에 그 하늘이 얼마나 좋은 하늘인지, 얼마나 만족스러운 하늘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늘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얼마나 큰 깊은, 넓은 행복감에 젖어 들게 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떠난 자들이 죽은 것임을 알고, 세상을 떠난 자를 슬퍼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 이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이 세상에 머물고 있구나!' 하시면서, 하늘을 떠나 죽은 자들임을 알고, 울고 있는 마리아가 죽어 있고, 울고 있는 유대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늘을 떠난 있는 걸 보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별 된 이 선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나'를 말합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왜 그럴까요?
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데, 이 죽었음에 대한 고백이 그 참 의미가 뭐고 참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죽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을 떠난 것이 죽음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이 묶여서 세상에 머물고 있어요.
가정에 묶여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 묶여 있고, 직장에 묶여 있고, 인생에 묶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이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죽음에 대해 죽는 겁니다.
죽음이 죽으니까 사는 거고, 생명이지요, 그래서 부활이지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직장을 좋아하고 있고, 내 인생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뭔가 이루고 싶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볼 땐 하늘을 떠난 것이고 죽은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세상에 묶여서 살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죽음에 대해 죽은 것이고 죽음이 없어진 것이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이 사실이, 이게 바로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늘에서 떠나서 죽었던 자가 하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 슬픔으로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늘을 떠났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똑같은 슬픔으로 하나님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저들이 하늘을 떠나 죽었다, 저들이 하늘을 떠나므로 이별이 만들어졌다'고 울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 대해 죽읍시다.
세상에 마음이 머물고 있어서 하늘을 떠난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죽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가 바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늘을 떠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죽음을 죽였으므로 부활하고 생명을 얻어서, 꼭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부활이 아니라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체가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성취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늘 우리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세상에서 마음이 머물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늘로 복귀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향하여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마음을 붙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떠난 것을 죽음으로 아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켜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머물고 있는 하늘을 떠난 죽음에 대해 죽게 하시므로, 하늘로 부활하고 내 마음이 하늘에 태어나는 생명의 하루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